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20년째 수감중인 목회자들, 그들의 신앙과 박해



에리트레아의 정교회의 전통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의 목회자가 20년째 수감돼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없이 구금되었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거부당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 중 일부다.

미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USA)의 토드 넬튼(Todd Nettleton)은 현재 에리트리아에 약 300-350명의 기독교인이 감금돼 있다고 전했다.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넬튼은 “그들 중 누구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실제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감된 세 명의 목회자들은 에리트레아 정교회(Eritrean Orthodox Church) 소속이었다. 넬튼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리트레아 정부가 2002년 복음주의 교회들을 폐쇄했을 때도 정교회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던 교회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목회자들이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대 언어로 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벗어나,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 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넬튼은 “이것이 정부와 불화하게 된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넬튼은 최근 이 목회자 중 한 명의 딸인 하나(Hana)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나는 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 당시 여섯 살이었으며, 같은 해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넬튼은 “하나는 아버지의 투옥을 통해 박해를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박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전했다.

하나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저에게 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에리트레아에서는 정부를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라고 밝혔다.

넬튼은 이러한 신자들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더욱 의지하는 점이 주목할 만 하면서, 하나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넬튼은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히브리서10:33-35)

하나님, 정교회의 관행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구금되어 수년 동안 재판조차도 받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는 종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조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정부의 박해로 환란 가운데 있지만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족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정부의 악한 행실을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 세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더욱 섬기는 예수교회로 세워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채찍질 70대 맞아

이란에서 한 여성이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이상 잔혹하게 채찍질을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든 영상이 SNS에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6일 데일리메일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 영상은 이란에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시 알리네자드의 SNS 엑스(X)를 통해 공개됐으며 영상에서 여성은 등 전체와 허벅지, 가슴 부분 등에 자줏빛 붉은 멍이 가득한 모습이다. 알리네자드는 이 여성은 히잡 착용을 거부한 후 체포돼 몇 달간의 법정 심리 끝에 74대의 채찍질을 선고받았으며 "이것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여성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이다. 여성이 머리카락을 보여줬다는 '죄'로 채찍질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란의 강경파 의회는 지난 1일 2년 전 히잡 미착용 혐의로 도덕경찰에 체포돼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후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던 기존의 복장 규제를 더욱 강화한 '순결과 히잡'법을 채택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라디아서 2:16)

하나님,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채찍질을 가해 고통을 당한 이란 여성을 돌봐주시고 갈수록 더욱 강경한 태도로 이슬람법을 고수하는 이란을 꾸짖어 주십시오.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이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음의 의를 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육체로 살던 옛 자아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정부의 괴롭힘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란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이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 영국, 남아 이름 1위 '무하마드'

지난해 영국에서 남자 아기에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이 '노아'를 제치고 아랍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무하마드(Muhammad)'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3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무하마드'라는 이름으로 출생 등록된 아기는 4,661명으로, 전년(4,177명)보다 늘어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1위였던 '노아'는 올해 4,382명으로 2위로 내려갔고 올리버(3,556명), 조지(3,494명), 리오(3,416명)가 뒤를 이었다. '무하마드'와 사실상 같은 이름인 '모하메드(Mohammed)'는 1,601명으로 28위, '모하마드(Mohammad)'는 835명으로 68위였다. 영국 통계청은 무하마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영국 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가능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슬람교를 만든 무하마드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자 아기는 아랍계 이름인 아이잘(Aizal)과 아이잘(Ayzal)이 각각 479%, 183%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창세기 35:10)

하나님, 영국 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자신의 신앙을 표하는 무하마드라는 이름 또한 증가함을 보며 이 땅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주께 고합니다. 영국에 살고 있지만 이슬람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무슬림들을 향한 교회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오니 주여, 이 땅에 성도들을 깨우사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하소서. 또한 무슬림들을 섬기는 단체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친히 참된 구원과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겔레푸 시티 개발로 인해 빈곤 계층 증가 우려돼



민총행복(GNH)이라는 독특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탄에서 지금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Gelephu Mindfulness City)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부탄의 지그메 왕추크(Jigme Wangchuck) 국왕은 지난해 12월에 1,000km²에 달하는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이 도시에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약 21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해외 투자를 유치해 도로, 교량, 공항, 주택, 학교, 병원, 상업 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부탄은 2023년 12월에 들어서야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었고, 2015년 이후로 국민의 6%가 해외로 이주한 상황이어서 무리한 추진으로 자국 내에 빈곤 계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제 규모가 확장됐지만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업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2019년과 비교해 2023년도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이후로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 28.6%까지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해에도 78만 명 부탄 인구 중 1.5%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네덜란드에 사는 부탄 난민 인권 운동가 람 카르키(Ram Karki)는 도시 개발로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도 없이 쫓겨나거나 땅을 잃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부탄은 불교 신자가 74.5%로 불교의 지배가 강력한 나라이며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부탄인은 시민권을 잃고 무상 교육, 의료 서비스, 직장 등을 잃게 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립보서 3:19-20)

하나님, 부탄이 겔레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경제 회복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나, 무리한 추진으로 빈곤층이 증가할 우려를 사고 있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육체를 위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인간이 만든 어떤 계획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헛된 수고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구차한 땅의 부를 좇지 않고 하늘의 시민으로 고난을 받는 부탄의 증인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중국 정부,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종교 자유 침해’라며 규탄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한 데 대해, 변호사, 인권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종교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CP가 7일 전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의 헌금을 범죄적 사기에 비유한 것은 오랜 종교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교회의 헌금이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는 헌금의 성경적·전통적 근거를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36조, 중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2018년 이후 12개 가정교회가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박해의 패턴이 드러난다고 지적하면서 “공산주의 정부의 전술이 미등록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11-12)

하나님,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하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드린 헌금은 범죄적 사기로 취급하여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이 나라를 꾸짖어 주십시오. 불의한 법과 제재가 울무와 같이 이 땅의 성도들을 움아매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주의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 앞에 중국 교회가 승리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족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머리 되신 주님만 사랑케 하옵소서.

▲ 한국, 국민 42%,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할 수 없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2%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 또는 음성을 의미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597명 국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으며, 이 중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55.9%, 심각 38.5%)고 답했고, 특히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를 가장 높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요구가 가장 높았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언 19:5,23)

하나님,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별할 능력과 법, 정책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거짓말로 사람을 해하는 악의적인 일에 경각심 없이 행하며 스스로 벌을 쌓고 있는 이 세대를 꾸짖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취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이 땅에 회복하여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 이들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악과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늘 선택하게 하소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도다”
“주술 때문에 아들 아파”...갱단, 부두교 신자 184명 학살**



갱단 폭력 사태를 겪고 있는 아이티에서 부두교 신자 학살 사건이 발생해 약 184명이 목숨을 잃었다. CNN과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티 총리실은 갱단이 지난 6일(현지 시간) 저녁부터 7일 사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시테 솔레유 지역에서 부두교 신자들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살은 제레미 부두에서 활동하는 갱단 두목 모넬 펠릭스의 명령으로 자행됐다고 국가인권보호네트워크(RNDDH)는 지적했다. 병에 걸린 아들이 있는 펠릭스는 제레미 부두 일대의 노인들이 ‘주술’을 통해 아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집

단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갱단의 공격으로 노인 127명을 포함해 최소 18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피격된 이륜차 택시 운전사 등 젊은이들도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보호네트워크는 “6일 미카노르는 최소 60명의 노인들을 총으로 사살했다”며 “7일 그와 그의 일행은 칼을 사용해 최소 50명을 더 죽였다.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픈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피에르 에스페란스 국가인권보호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증언에 따르면 “훼손된 시신들은 거리에서 불태워졌다”며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릭스는 2012년 부두교를 믿는 여성 노인 12명이 살해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아이티의 토착 종교 중 하나인 부두교는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서반구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이후 정부의 행정력이 무력화되고 갱단의 약탈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에만 갱단이 연루된 폭력으로 4천500명 이상이 사망, 7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앞서 유엔은 폭력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케냐 주도로 다국적 경찰력을 파견했지만 갱단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갱단은 포르토프랭스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연합뉴스, 뉴스1 종합).

여호와 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 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시편 11:5,7)

하나님, 갱단의 폭력으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아이티에 부두교 신자들을 표적 삼는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자신의 세력으로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갱단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정의를 상실한 이 땅에 주의 공의를 비취 주소서. 그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여호와 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깨달아 크신 주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리에 무지하고 영혼이 곤고하여 헛된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태국 법원, 아동 1,000명 성폭력 교사에 징역 129년 선고

태국에서 1,000명에 달하는 아동을 성폭행한 교사가 12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1일 현지매체 네이션을 인용해 전했다. 방콕의 한 교사는 아동 성 학대 사건으로 핏사눌룩 법원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해당 교사가 북부 핏사눌룩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그의 어머니에게 각각 150만 바트(한화 약 6,400만 원)과 65만 바트(한화 약 2,8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체포된 32세 교사는 모델 에이전시 대표인 다누뎃 생깨우(28)와 공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그루밍'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특별수사국은 두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일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누뎃은 50만 장 이상의 아동 성 학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139년 7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한1서 3:4,8)

하나님, 악을 공모하여 속이는 말과 위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성폭행하며 무참히 짓밟은 태국의 소식 앞에 참 소망 없는 죄인의 실상을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갑시다. 주여,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거룩함과 순결함을 더럽히는 이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죄와 불법으로 영혼을 범죄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과를 멀리하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소망이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소서. 학대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형상으로 지으신 원형의 생명을 누리며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 모잠비크 50일 넘게 대선불복 시위...110명 사망

모잠비크에서 지난 10월 9일 치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항의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유혈 진압으로 11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인권 단체를 인용해 지난 4-9일 모잠비크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30명 이상 숨지는 등 시위와 진압에 나선 군경의 총동원으로 지금까지 1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잠비크 정부는 50일 넘게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모잠비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집권당 프렐리모(모잠비크해방전선)의 다니엘 샤푸 후보가 대선에서 70.6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5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 프렐리모가 다시 집권하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커져 시위로 번졌다. 20.32%로 낙선한 베난시우 몬들라노 무소속 후보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 시위와 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가 3:1,8)

하나님,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항의 시위가 모잠비크 전역에서 일어날 만큼 분노하는 국민들과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현 정권의 부정부패와 언론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와 백성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위정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는 모잠비크 교회의 간구로 낙심한 자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